

가부장적 서사 장치의 강화, <김현감호>의 플롯 연구

김경미*

<차례>

1. 머리말
2. 두 서사의 경합과 일연의 선택
3. <김현감호>의 젠더화된 플롯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연이 쓴 <김현감호>의 플롯을 분석하여 그 서사적 성격을 밝히고 이를 12세기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해석한 것이다. 일연은 <김현감호>에서 김현과 호녀의 이야기, 신도징과 호녀의 이야기를 쓰고, 두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밝힌 뒤 찬을 통해 김현이 만난 호녀를 기린다. 이 글은 두 이야기와 일연의 평가까지를 <김현감호>의 플롯으로 보고, 먼저 김현과 호녀의 이야기와 신도징과 호녀의 이야기를 <호원>, <신도징>과 각각 비교하고, 일연이 두 서사에 대해 평가한 부분을 분석했다. 일연은 두 이야기를 병치한 뒤 신도징 이야기의 호녀는 배신자로 김현 이야기의 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 인(仁)을 이룬 윤리적 존재이자 절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종교적 인물로 평가하고, 김현도 부처가 감응할 정도로 신심이 깊은 종교적 인물로 평가했다. 일연은 <김현감호>에 나타난 애정전기적 요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반면, 불교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또한 일연은 여자의 행위를 김현과의 사랑보다는 가족을 위한 희생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했다. 이처럼 남자를 위한 희생의 플롯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자의 플롯을 더한 결과 <김현감호>는 가부장적 성격이 강화된 젠더화된 플롯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가부장성의 강화는 12세기 당시 여성들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맞는 의식구조와 생활을 요구받았던 것과 관

*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런이 있으며, 일연이 <김현감호>를 통해 보여준 가부장적 의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현감호>는 12세기 무렵 인간/남자와 호랑이/여자의 사랑을 다룬 두 플롯이 경합하다가 김현의 이야기가 선택되는 현장을 보여주며, 애정전기가 불교적 서사로 전환하는 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12세기 무렵 전기를 둘러싸고 일어난 서사 전환의 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주제어 일연, 김현감호, 신도징, 가부장적 서사 장치, 플롯

1. 머리말

여기 두 이야기가 있다. 아니 두 호랑이 여자와 인간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여자의 집으로 가니 여자는 실은 호랑이가 변해서 된 여자였고, 호랑이 여자는 반사회적인 가족을 대신해 죽으면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남자에게 관직에 오를 기회를 주고 죽는다. 또 한 남자는 눈보라 치는 날 우연히 길가의 집에 묵었다가 그 집 딸과 결혼을 하고 바로 부임지로 가서 여자가 열심히 살림한 결과 집안을 이루고 아들, 딸도 낳았다. 그러나 관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들른 친정에서 여자가 호피를 발견하고 덮어쓰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 일연(1206~1289)이 <김현감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이야기다. 앞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현과 호녀(虎女), 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도징과 호녀로 각각 『수이전』, 『태평광기』에 실려 있다. 그 배경은 각각 신라와 중국 당나라이다. 일연은 이 두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지는 않는다. 일연은 두 이야기를 제시한 뒤 앞의 여자는 어진 여자, 뒤의 여자는 배신한 여자라고 평가한다. 일연의 평가가 두 여자의 행위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일연은 이 두 이야기를 두 여

자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제목이 의미하는 바 이 이야기는 김현의 이야기다.

이처럼 <김현감호>는 인간/남성과 동물/여성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기이한 일을 다룬 두 편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다가, 그 중 한 편이 중국의 전기인 <신도징>을 부분 생략한 것이어서 전기 양식의 하나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이후 <김현감호>에 대한 연구는 그 장르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초기소설사의 형성과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로부터 중국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광기』에 수록된 <신도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비교문학적 연구, 문체 분석이나 김현과 호녀의 관계나 호랑이 여자의 성격 분석을 통한 작품의 주제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김현감호> 연구는 장르적 성격과 호녀의 희생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임형택이 <김현감호>의 전기적 성격을 밝힌 이후 이 작품은 한국의 초기서사 형성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다.¹⁾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김현감호>의 전기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불교적 성격을 부각하면서 작품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 다양해지고 있다. 박일용은 문인 지식층의 세속적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인 전기에 속하는 <신도징>과 불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삼국유사』 소재 <김현감호>가 지향하는 이념적 차이에 주목하고, <김현감호>와 <신도징>은 이념적 기반을 달리하는 별개의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로서 <김현감호>는 현실적 지배질서를 지향하는 김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부처의 영험을 부각시킨 불교적 영이전(靈異傳)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²⁾ 정환

1)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9~30쪽.

2) 박일용, 「소설사의 기점과 장르적 성격 논의의 성과와 과제」,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28~29쪽.

국은 한국 초기서사의 구도에 대한 복수적 인식을 제안하면서 불교의 영험서사, 기층무속의 지괴서사, 역사전기(傳記)서사, 문인전기(傳奇)서사로 구분하고 <김현감호>를 불력(佛力)의 자장 안에서 이루어진 김현의 영험을 체험한 서사로 규정했다.³⁾

<김현감호>는 이질적인 존재 간의 만남이라는 비일상적인 소재와 동물/여자의 희생과 배반이 겹쳐져 있어 그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낳았다. 정출현은 <김현감호>라는 텍스트가 남성 세계가 호랑이/여성인 그녀에게 자발성으로 포장된 무한한 자기희생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면서 가문과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삶을 포획하기 시작하던 남성/가장 중심주의를 지적했다.⁴⁾ 덩위첸(鄧雨宸)은 호녀의 형상화는 일연의 종교적 의도에 의해서 재구성된 것으로 일연은 의도치 않게 신화의 희생제의를 모방해 이야기를 재구성했다고 평가했다.⁵⁾ 이와 달리 류준경은 호녀가 자기희생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인간보다도 더 ‘인간’다운 호랑이, 호랑이의 모습을 한 진정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었으며 이것이 <신도징>과 다른 방향에서 <김현감호>가 이룩한 문학적 성취라고 평가했다.⁶⁾ 임완혁은 호녀의 소원은 그 죽음 뒤편에 엄연히 존재하는 고귀한 이타(利他)의 삶과 중생 구제의 삶이었다고⁷⁾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류준필은 <김현감호>의 특정집단의 예외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류(異

3) 정환국, 「한국 초기서사의 복수(複數) 구도」,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165쪽.

4) 정출현, 「삼국의 여성을 읽던 一然의 한 시각: 『金現感虎』의 경우」, 『문학과 경계』 13, 문학과경계사, 2004, 313쪽.

5) 鄧雨宸, 「김현감호의 호녀 형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1쪽.

6) 류준경, 「<金現感虎>를 통해 본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45쪽.

7) 임완혁, 「<김현감호>에 나타난 虎女의 형상과 주제의식」, 『대동한문학』 53, 대동한학회, 2017, 138쪽.

類)의 존재가 그러한 특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간(남성)과 인연을 맺지만 상호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으로 인해 결국은 관계의 단절 혹은 파국에 이르는 내용을 갖고 있는 서사로 보고 이를 김현감호형 서사로 명명했다.⁸⁾ 그러나 호녀를 예외적 소수자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남긴다.

이 글은 <김현감호>의 플롯을 문제삼는다. 플롯을 문제삼는 것은 서술자의 기획이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이다. 일연은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있으며, 두 이야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 <김현감호>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며 <김현감호>의 플롯은 이를 위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면서 이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김현감호>의 장르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지만 일연이 가져온 이야기들이 한국 서사문학사의 초기 서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거나 언급하게 될 것이다.

2. 두 서사의 경합과 일연의 선택

<김현감호>의 플롯을 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김현감호>의 내용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주지하듯 일연은 <김현감호>라는 제목 하에 두 이야기를 병치하고 비교한 뒤 김현이 만난 호녀를 칭송하고 찬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김현감호> 안에는 두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제목에는 김현의 이야기만을 드러내고 있다.

8) 류준필, 「<김현감호>형 서사의 비교문학적 접근」,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66쪽.

<김현감호>는 김현과 호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도징과 호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부차적인 것인가? 그렇다면 <김현감호>는 신도징의 이야기를 빼고 읽어도 무방한 이야기인가? 도대체 신도징의 이야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일연이 신도징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 신도징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읽을 때와 포함시켜서 읽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조현우는 <김현감호>를 ‘김현의 이야기-신도징의 이야기-논평’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편찬자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텍스트로 평가한다. 그 제목도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가 아니라 ‘김현이 호랑이와 감응하다’이거나 ‘김현은 호랑이와 감응했지만 신도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의 축약형이라고 해석하고, 일연의 관심은 김현이나 신도징이라는 구체적 인물에 있다기보다는 초월적 존재의 주제에 의한 감응 여부에 있다고 추측하고 <호원>과의 비교를 통해 <김현감호>의 유기성을 확인한다.⁹⁾ 필자 역시 ‘김현의 이야기-신도징의 이야기-논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연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본다.

먼저 일연이 <김현감호>의 플롯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일연은 신라 원성왕대에 살았던 김현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김현은 탐을 돌다가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관계를 맺고 여자가 거부하는데도 기어이 처녀의 집으로 따라간다. 김현이 여자의 집으로 가자 여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파가 마지못해 김현을 받아들이지만 곧 이어 호랑이 모습을 한 여자의 오빠들이 나타나 김현을 잡아먹으려 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한 놈을 베겠다고 하자 여자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제안한다. 세 호랑이가 기뻐하며 간 뒤 여자가 다음날 성안에 들어가 해로운 일을 하면 왕

9) 조현우, 「<金現感虎>와 <虎願>의 對比 研究」, 『어문연구』 29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87쪽.

이 벼슬을 걸고 자신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때 따라오면 기다리겠다고 한다. 김현이 배필의 주검을 팔아 벼슬을 구할 수 없다고 거절하나 여자가 절을 지어달라고 한다. 다음날 맹호가 나타나자 왕이 벼슬을 걸고 사람을 모집한다. 김현이 나서서 벼슬을 받고 숲으로 가니 맹호가 여자로 변하여 웃으며 맞이한다. 여자가 간밤의 일을 잊지 말라고 하고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알려준 뒤 김현의 칼을 빼서 스스로 찢었는데 호랑이였다. 김현이 절을 짓고 호원사라 했다. 김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 일을 기록해 남겼다. 일연은 이렇게 김현이 경험한 일과 그 일이 남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 뒤 바로 신도징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정원 9년 신도징이 한주(漢州) 십방현(什放縣)의 관리가 되어 부임하러 가던 길에 눈보라와 추위로 길을 갈 수 없어 길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는 늙은 부모와 14,5세 가량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꾸미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날이 저물어도 눈보라가 그치지 않자 신도징이 자고 가기를 청한다. 처녀가 얼굴을 다듬는 것을 본 신도징이 청혼하니 부모가 허락한다. 혼례를 올린 뒤 신도징이 아내를 말에 태워 부임지로 간다. 부임한 뒤 봉급이 매우 박했으나 아내의 노력으로 집안을 이루었다. 임기가 끝나 돌아갈 무렵 1남 1녀가 있었는데 매우 똑똑하였다. 신도징은 부인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하여 그 마음을 담은 시를 주자 부인은 종일 읊조리며 화답할 듯하다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 돌아가는 길에 부인이 갑자기 앞에 받은 시에 화답하는 시를 읊어 산림에 머물고자 하는 뜻을 밝힌다. 친정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자 부인이 몹시 그리워하여 하루 종일 울다가 벽에 걸린 호피를 보고 크게 웃더니 그것을 뒤집어썼다. 그러자 호랑이로 변하여 포효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신도징은 놀라 피한다. 두 아이를 데리고 길을 찾아나서 산림을 바라보며 며칠간 큰 소리로 곡을 했으나 끝내 간 곳을 알지 못했다.

신도징의 이야기를 끝낸 뒤 일연은 두 이야기를 정리하고 비교한다. 신도징과 김현이 이물(異物)을 만나고 변해서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한쪽은 사람을 배반하는 시를 준 뒤에 포효하면서 달아나고, 다른 한쪽은 부득이하게 사람을 다치게 했으나 그 처방까지 알려주었으니 어질다고 했다. 이처럼 김현감호는 인간/남자가 동물/여자를 만난 두 이야기를 김현, 신도징의 순서대로 배치하고 이를 비교한 뒤 김현이 만난 동물/여자의 희생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찬을 써서 김현이 만난 호녀를 기린다. 형식상으로는 전(傳)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기이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전기(傳奇)의 형태로 볼 가능성도 갖고 있다. 이 두 이야기는 일연의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조선시대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에 출처를 『수이전』이라 밝힌 <호원(虎願)>이 전하고 『태평광기』에 <신도징>이 전한다. 일연의 <김현감호>는 이 두 이야기와 차이를 드러낸다. 일연이 각각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무엇을 넣고 뺐는지를 보면 일연이 <김현감호>에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먼저 김현과 호녀의 이야기를 보자. 일연에 의하면 이 이야기의 원 출처는 김현이 죽기 전에 남긴 기록이다. 김현이 남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논호림’이라 부르는데 ‘지금까지도 일컫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일연 당대에도 김현의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내용이 일연이 쓴 <김현감호>와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수이전』으로 출처를 밝힌 『대동운부군옥』 소재 <호원>과의 차이 때문이다.

<호원>의 줄거리는 <김현감호>의 김현과 호녀 이야기에 비하면 간략하다. 김현이 탑을 돌다가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관계를 맺고 따라간다. 여자가 다음날 성안에 들어가 해로운 일을 하면 왕이 벼슬을 걸고 자신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때 따라오면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절을 지어

좋은 과보를 얻게 해 달라고 하고 서로 올면서 헤어진다. 다음날 맹호가 나타나자 왕이 벼슬을 걸고 사람을 모집한다. 김현이 잡겠다고 나서서 벼슬을 받고 숲으로 가니 맹호가 여자로 변하여 웃으며 간밤의 일을 잊지 말라고 하고 김현의 칼을 빼서 스스로 찢었는데 호랑이었다. 김현이 절을 짓고 호원사라 했다. 여기까지가 호원의 내용이다. <호원>은 <김현감호>의 김현과 호녀 이야기에 비해 간략하다. 어머니와 세 오빠의 등장, 호녀가 다섯 가지 이로움을 들어 김현을 설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임형택은 『대동운부군옥』의 <호원>을 『삼국유사』의 <김현감호>를 축약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동운부군옥』이 축약된 형태로 실은 것은 책의 성격이 사전의 일종으로 말의 뜻을 풀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긴 글을 다 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¹⁰⁾ 조현우는 <호원>이 <김현감호>와 같은 텍스트로 왔다고 보지만, <호원>이 전체 내용을 균일하게 생략하거나 축약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축약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두 텍스트 사이에 개재한 사과의 차이를 밝히고자 했다.¹¹⁾ 이정원 역시 <호원>이 단순한 축약이 아니라 <김현감호>의 논리에 대한 방어이자 보충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¹²⁾ 류준경은 김현의 이야기가 ‘김현과 호녀의 결연과 좌절’을 다루는 전반부와 ‘호녀의 희생과 보상’을 다루는 후반부가 문체, 서사적 지향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후반부의 내용을 도성에서 난동을 부린 호랑이를 죽인 사건의 설화적 이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¹³⁾

<호원>이 <김현감호>와 완전히 다른 부분은 호녀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과 호녀와

10)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9쪽.

11) 조현우(2001), 앞의 글, 187~192쪽.

12) 이정원, 「애정 전기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77쪽.

13) 류준경(2010), 앞의 글, 139~140쪽.

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된다. 김현은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것은 떳떳한 인륜의 도이고 다른 부류와 사귀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관직을 얻겠느냐고 거절한다. 그러나 처녀는 자신이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고, 자신의 소원이며, 김현의 경사이고, 가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며 한 번의 죽음으로 다섯 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호녀의 이 말은 <김현감호>의 성격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으로 호녀의 죽음은 고귀한 희생인가, 가부장제의 강요에 의한 자발성인가의 문제로부터 다양한 해석을 낳는 중요한 부분이다. <호원>에는 이 부분이 없다. <호원>이 <김현감호>에 있는 부분을 생략한 것인가, 아니면 <김현감호>가 <호원>에 없는 부분을 첨가한 것인가? 김현이 남겼다는 기록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수이전』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전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김현감호>의 플롯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일연이 호녀가 죽음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룬다.

일연은 또 『태평광기』 소재 <신도징>을 가져오면서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김현감호>의 신도징 이야기는 『태평광기』 소재 <신도징>을 축약해서 싣고 있다. 즉 사건의 순서를 변형하거나 문장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생략하는 형태로 축약하고 있는 것이다.

일연이 완전히 생략한 내용은 신도징이 자고 가기로 한 날 밤에 주인 부부와 술을 마시며 처녀에게 주령(酒令)을 내고 시를 주고받는 부분, 신도징이 청혼하자 부모가 이전에도 청혼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차마 헤어질 수 없어 거절했다는 이야기, 신도징이 혼인의 예로 주머니를 털어서

주었으나 부모가 받지 않은 것, 여자가 매번 신도징에게 부인의 도리를 위해 글을 알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 신도징이 관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시를 읊어주자 이 시에 대해 신도징이 말한 내용이다.

『태평광기』 소재 <신도징>에서는 먼저 술을 마시며 시를 주고받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일연은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다. 생략된 부분을 보자.

잠시 후 노부인이 밖에서 술병을 가지고 와서 불 앞에서 데우면서 신도징에게 말했다.

“그대는 추위를 무릅썼으니 술 한 잔 드시고 추위를 녹이시지요.”

신도징이 읊을 하고 사양하며 “주인부터 드십시오.”라고 하니 노인이 순서대로 잔을 돌렸는데 신도징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신도징이 “자리에 아직 아가씨가 안 오셨네요.”라고 하니 노부부가 모두 웃으며 말하기를, “시골집에서 자라 어찌 손님 맞을 예를 갖추었겠습니까?”라고 했다. 여자가 바로 눈길을 돌려 흘끔 보면서 말하기를, “술이 어찌 귀해서이겠습니까만 제가 술자리에 끼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어머니가 즉시 치마를 끌어당겨 옆에 앉게 했다. 신도징이 처음에 그 재능을 알아보려고 바로 주령(酒令)을 내어 그 뜻을 살폈다. 신도징이 잔을 들어 “경서의 말씀을 찾아 눈앞의 일을 말하도록 합시다.”라고 하고 읊기를 “편안히 오래도록 술 마시는 이 밤, 취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니 여자가 쪽진 머리를 수그리며 미소 짓고는 “날이 이룬데 돌아가신들 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잠시 뒤에 술잔이 돌아 여자에게 이르자 여자가 다시 주령을 내고는 “비바람 몰아쳐 어둑한데, 닭울음소리는 그치지 않네”라고 읊었다. 신도징이 깜짝 놀라 감탄하며 말했다. “아가씨가 이렇게 총명하고 제가 다행히 미혼이니 감히 스스로 청혼해도 괜찮겠습니까?”¹⁴⁾

14) 이방 등 편, <신도징>, 『태평광기』 권 429, 『태평광기』 5, 文史哲出版社, 1981, 3487쪽, “有頃, 嫗自外挈酒壺至, 於火前煖飲, 謂澄曰, 以君冒寒, 且進一杯, 以禦

우연히 머물게 된 집에서 주인이 추위에 언 손님에게 술을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벌어지고 딸이 함께 자리하게 되면서 신도징과 딸이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떠보는 장면이다. 딸이 술자리에 참석하자 신도징은 먼저 주령을 내어 여자의 재능을 시험한다. 주령은 술자리에서 한 사람이 수수께끼처럼 시구를 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대구로 답하는 일종의 놀이이다. 신도징은 경전의 구절을 들어 여자의 문장 능력을 시험하는데 여자는 어려움 없이 답한다. 이들이 주고받은 시구는 『시경』 「소아」 ‘담로(湛露)’와 『시경』 「정풍」 ‘풍우(風雨)’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신도징은 여자의 대답을 듣고는 ‘총명하고 똑똑함’에 놀라 칭찬한다. 이 장면은 여자의 성격이 예사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일정한 교양을 갖춘 총명하고 똑똑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남녀 주인공이 시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 진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남녀 인물의 마음을 소통하게 하는 방식은 <최치원>이나 <이생규장전> 같은 애정전기에서 종종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연은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한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시에 대해 언급하거나 여자의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부분도 생략한다.

신도징은 아내의 조력으로 집안을 이루고 총명하고 똑똑한 아들, 딸을 두게 되자 부인을 더욱 공경하여 ‘아내에게 주는 시’ 한 편을 지어준다.

凝冽. 因揖讓曰, 始自主人. 翁即巡行, 澄當焚尾. 澄因曰, 座上尚欠小娘子. 父嫗皆笑曰, 田舍家所育, 豈可備賓主. 女子即回眸斜睨曰, 酒豈足貴, 謂人不宜預飲也. 母即牽裙, 使坐於側. 澄始欲探其所能, 乃舉令以觀其意. 澄執盞曰, 請徵書語, 意屬目前事. 澄曰, 厭厭夜飲, 不醉無歸. 女低鬢微笑曰, 天色如此, 歸亦何往哉. 俄然巡至女, 女復令曰, 風雨如晦, 雞鳴不已. 澄愕然歎曰, 小娘子明慧若此, 某幸未昏, 敢請自媒如何.” 『태평광기』 18, 김장환·이민숙의 옮김, 학고방, 2004, 92~93쪽.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벼슬 한 자리 매복에게 부끄럽지만	一官慚梅福
삼년의 삶은 맹광을 부끄럽게 하네	三年愧孟光
이 마음 어디에 비길까	此情何所喻
물가의 원앙새로다	川上有鴛鴦

매복은 처자를 버리고 신선이 된 인물이고, 맹광은 양홍의 아내로 어진 아내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여성이다. 신도정은 이 시에서 벼슬을 한 자신은 신선이 된 매복에게는 부끄럽지만 삼년의 삶은 맹광조차 부끄럽게 할 정도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원앙에 비유하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맹광조차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여자가 헌신적으로 남편을 받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를 받은 여자는 종일 이 시를 읊으며 화답할 듯 하다가 말고 끝내 답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김현감호>의 신도정 이야기에 실려 있다. 그런데 여자가 신도정에게 매번 “부인의 도리를 위해 글을 모를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다시 시를 쓴다면 도리어 늙은 부인네 같을 뿐입니다.”¹⁵⁾라고 말한 것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은 여자가 신도정의 시에 화답하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일 텐데 ‘다시 시를 쓰게 되면 늙은 부인네[媼妾] 같을 것’이라고 한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앞에 한 말, 부인의 도리를 위해 글을 알아야 한다고 한 말과 연결해서 짐작해 보면 늙은 부인처럼 부인의 도리나 읊는 시를 쓰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화답시를 주지 않던 여자가 신도정이 관직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강가에 이르러 물가의 풀밭에 앉아 쉬다가 갑자기 화답시를 주는데 일연은 이 장면을 부분 생략했다.

신도정이 관직이 끝나자 즉시 집을 비우고 진(秦)으로 돌아갔다. 이주(利

15) <신도정>, “每謂澄曰, 爲婦之道, 不可不知書, 倘更作詩, 反似媼妾耳.”

州)를 지나 가릉강(嘉陵江)가에 이르렀다. 물을 보며 풀을 깔고 앉아 쉬었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슬픔에 빠져 신도징에게 말했다. “전에 제게 준 시 한 편을 보고 즉시 화답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이 경치를 보니 끝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읊조리기를 “부부의 정이 비록 중하지만 산림의 뜻 저절로 깊어 늘 시절이 변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백년가약 저버릴까봐.” 읊기를 마치고 한참 눈물을 흘렸는데 마치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신도징이 말했다. “시는 아름답소. 그러나 산림은 약질이 사모할 게 아니요. 혹시라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제 다 왔는데 어찌 슬퍼하고 운단 말ियो? 인생의 인연과 업상에 관한 일은 모두 전생에 이미 결정된 데서 비롯되는 것이오.” 이십여 일이 지난 뒤에 아내가 살던 집으로 가니 초가는 예전과 같은데 아무도 없었다. 신도징이 곧바로 그 아내와 그 집에 머물렀다. 아내는 그리움이 깊이 사무쳐 종일 울다가 벽 모퉁이에 서 옛날 옷 밑에 있는 호랑이 가죽 하나를 보았는데 온통 먼지가 앉고 때가 묻어있었다.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게 아직 있을 줄은 몰랐어.”¹⁶⁾

위에서 줄 친 부분은 일연의 <김현감호>에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생략한 부분이다. 여자는 이전에 신도징이 준 시에 화답하지 못한 이유와 이제 화답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화답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 줄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제 화답하는 것은 경치를 보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보여줄 수 없었는가? 여자

16) <신도징>, “澄罷官, 卽罄室歸秦. 過利州, 至嘉陵江畔, 臨泉藉草憩息, 其妻忽悵然謂澄曰, 前者見贈一篇, 尋卽有和, 初不擬奉示, 今遇此景物, 不能終默之. 乃吟曰, 琴瑟情雖重, 山林志自深, 常憂時節變, 辜負百年心. 吟罷, 澹然良久, 若有慕焉. 澄曰, 詩則麗矣, 然山林非弱質所思, 倘憶賢尊, 今則至矣, 何用悲泣乎. 人生因緣業相之事, 皆由前定. 後二十餘日, 復至妻本家, 草舍依然, 但不復有人矣. 澄與其妻卽止其舍. 妻思慕之深, 盡日涕泣, 於壁角故衣之下, 見一虎皮, 塵埃積滿. 妻見之, 忽大笑曰, 不知此物尙在耶.”

가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은 산림을 향한 뜻 때문에 부부의 정을 저버릴지도 모르는 마음이다. 여자는 산림을 향한 마음과 백년가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을 마친 뒤에 무엇을 그리워하는 듯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여자의 고민과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준다. 신도징은 산림에 대한 뜻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내의 시를 보고 시는 아름답지만 산림은 약질이 사모할 게 아니며 인생의 인연과 업은 전생에 결정된 것이라고 답한다. 아내의 고민을 이해하지 않는 말이다. 약질은 여자를 비약(卑弱)한 존재로 간주하던 사고에서 나온 말로 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도징은 아내의 조력에 몹시 고마워하고 공경하지만 아내의 바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승에서의 삶은 이미 전생에 결정된 것이라고 하며 변화의 가능성, 즉 산림에 대한 미련을 차단한다. 일연은 신도징의 이러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을 생략했다.

이외에도 일연은 문장을 쓰면서 글자를 바꾸거나 한 두 글자를 첨가하고 있다. “閑麗之態”를 “閑雅之態”로, “其女見客 更修容靚飾”을 “其女見客方止 修容靚粧”으로, “不期貴客又欲援拾, 豈敢惜”을 “不期貴客又欲採拾, 豈定分也” 등으로 바꾼 것들이 그 예이다.

이야기를 마친 뒤 일연은 두 호녀의 행위를 평가하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전체 서사를 마무리하면서 <김현감호>라는 제목의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제시한다. 일연은 <김현감호>를 통해 당대에 경합하며 전해지던 서사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새로운 플롯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현감호>에서는 기존의 서사와 일연의 서사 사이의 틈이 드러난다. 이 틈은 일연이 자신의 플롯을 짜면서 기존의 서사를 달리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일연이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했는가 하는 서사 의도, 플롯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3. <김현감호>의 젠더화된 플롯¹⁷⁾

일연이 기존의 두 서사를 가져와서 쓴 <김현감호>의 플롯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불교적 신이를 드러내는 서사로의 전환이다. <호원>도 김현과 호녀가 절에서 탑을 돌다가 만나고 절을 지어 달라고 부탁해서 호원사라는 절을 지어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본적으로 불교적 서사이다. 그러나 <김현감호>는 여기서 나아가 일연이 호녀와 김현의 행위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전(傳)으로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일연의 새로 쓰기는 먼저 불교적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연은 두 이야기를 한 뒤 각 인물을 평가하는 말과 호녀를 기리는 시를 차례로 놓았다. 일연은 두 이야기의 같은 점으로 신도징과 김현이 이물(異物)과 만났는데 변해서 사람의 아내가 된 점을 들고, 차이로 신도징의 호녀는 배반하는 시를 준 뒤 포효하며 달아났을 뿐이지만 김현의 호녀는 부득이 사람을 상하게 했으나 처방을 주어 사람을 구했다는 점을 든다. 신도징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연은 다시는 신도징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일연은 이제 김현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한다. 신도징의 서사는 아예 거론되지 않는다. 일연은 두 이야기를 나란히 이야기한 뒤 신도징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으므로써 신도징 이야기를 부차적인 이야기로 만든다. 여기에 이르면 독자는 신도징 이야기가 비슷한 비중으로 실려 있으면서 제목이 김현감호인

17) <김현감호>의 젠더화된 플롯에 대해서는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225쪽, 234쪽에 간략히 언급된 바 있음.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이제 일연은 김현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짐승도 인(仁)을 행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며 호녀의 일을 인(仁)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핀다.’ 김현과 호녀의 일에 대한 일연의 분석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 안을 돌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소리가 악을 징계하자 자신이 대신하고, 신통한 처방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고, 절을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강하게 했으니 짐승의 본성이 어질어서만이 아니다. 대개 부처가 사물에 응하는 것은 다방면이어서 김현공이 절을 돌 때 정성을 다한 것에 감응하여 이로움을 주고자 한 것일 뿐이니 당시에 복과 도움을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¹⁸⁾

일연은 여자가 한 일 네 가지를 든 뒤에 대해 짐승의 본성이 어질어서만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일연은 네 가지 가운데 김현이 관직을 얻은 것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일연은 김현이 복을 받은 것은 부처의 감응력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가 다방면으로 응하기 때문에 김현이 정성을 다해 절을 도는 것을 보고 이로움을 준 것이며 김현이 당시(當時)에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일연은 당시에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당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연은 김현이 여자의 덕으로 관직을 얻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감응으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¹⁹⁾ 그런데 일연의 결론은 앞에서

18) 일연, <김현감호>, “詳觀事之終始, 感人於旋遶佛寺中, 天唱徵惡, 以自代之, 傳神方以救人, 置精廬講佛戒, 非徒獸之性仁者也. 盖大聖應物之多方, 感現公之能致情於旋遶, 欲報冥益耳, 宜其當時能受禧佑乎.” 이대형 편역, 『수이전』, 소명출판, 260쪽. 번역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김현이 기록을 남기게 된 이유를 기술한 부분과 배치된다. 앞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자. 일연은 김현의 이야기 부분에서 이렇게 썼다. ‘김현은 관직에 오른 뒤 호랑이의 소원대로 절을 짓고 범망경을 강해서 호랑이의 저승길을 인도하게 하고, 또 호랑이가 살신하여 자신을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 이전에 겪은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해서 전을 지었다.’ 김현은 자신을 성공시켜 준 은혜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일연은 김현의 정성에 부처가 감동해서 드러나지 않게 이로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복을 받았다고 해석한다. 이 차이, 혹은 틈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일연은 김현이라는 인물이 호녀를 만난 결과 관직을 얻게 된 것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남자가 호랑이 혹은 미천한 여자의 도움으로 관직을 얻었다는 것이 불만이었을까?

일연은 아마도 김현이 호녀를 만나 사랑을 나눈 뒤 바로 관직을 얻었다는 결말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덕을 쌓지 않고 호녀와의 결연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연은 이들의 행위를 다시 해석한다. 일연은 김현이 호녀에 대해 ‘자기를 죽여 자기를 성공하게 해 주었다[殺身成己]’고 한 것을 ‘자기를 죽여 인을 이루었다[殺身成仁]’로 바꾸어 인(仁)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하고, 김현에 대해서는 부처가 감응해서 명익(冥益)으로 보답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명익은 부처나 보살이 드러나지 않게 주는 이익을 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뒤에 나타나는 것이다. 김현은 즉각 이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김현이 받은 것을 명익이라고 명명하고 김현이

19) 박일용은 일연이 김현의 입신을 부처의 영이함 때문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하고 <김현감호>를 부처의 영험을 부각시킨 불교적 영이전으로 보는 한 근거로 삼았다. 박일용(2007), 앞의 글, 27~28쪽.

명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김현이 탐을 돌 때 정성을 다한 것을 보고 부처가 감응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김현이 본래 신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 탐을 돌았고, 그 결과 복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일연이 보기에 김현이 당시에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당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일연은 김현이 호녀 덕분에 보응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쌓은 공덕으로 보응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일연은 호녀를 자신을 희생해서 인(仁)을 이룬 윤리적 존재이자 절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종교적 인물로 평가하고, 김현도 부처가 감응할 정도로 신심이 깊은 종교적 인물로 평가한다. 그런데 일연의 김현에 대한 평가 이면에 약간의 왜곡과 은폐가 있다. 김현이 여자와 관계를 맺은 뒤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따라가고, 여자가 오빠들을 대신해 죽으면서 김현에게 자신을 죽여 관직을 얻을 기회를 제안했을 때 거절하다가 결국은 여자가 죽은 대가로 벼슬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여성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플롯을 통해 그러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현감호>의 김현과 호녀 이야기에는 호녀의 가족이 등장한다. <호원>에는 없는 설정이다. 여자가 김현과 함께 집으로 가니 어머니로 짐작되는 노파가 꾸짖고, 세 오빠가 오자 김현을 숨긴다. 오빠들이 냄새를 맡고 잡아먹으면 되겠다고 하자 노파와 여자가 미쳤느냐고 꾸짖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하나를 잡아 응징하겠다고 한다. 오빠들이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을 때 여자가 오빠들 대신 죽겠다고 나서자 오빠들이 좋아하면서 간다. 어떤 집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약한 존재가 희생양의 대상이 되기 쉽다. 누이가 희생을 자처하자 오빠들이 좋아서 갔다는 것은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파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빠들이 냄새를 맡고 요리하면 되겠다고 하자 노파

는 호녀와 함께 미쳤느냐고 꾸짖지만 하늘의 소리가 들린 뒤 여자가 오빠들을 대신해 죽겠다고 했을 때 노파는 침묵한다. 무언의 동조인 셈이다. 김현과 여자의 이야기가 본래 그런 것을 일연이 가져왔을 뿐이라면 플롯에 내재해 있는 가부장적 의식을 일연의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신도징의 플롯과 신도징의 호녀에 대한 평가를 연관시켜 보면 그 일관성이 드러난다.

앞서 보았듯이 일연은 <신도징>을 가져오면서 여자의 시 짓는 능력, 산림에 대한 뜻과 가족 유지 사이에서의 갈등, 여자의 화답시에 대한 신도징의 발언 등을 생략했다. 일연이 여자의 교양과 내면의 갈등을 생략하고 신도징의 아내에 대한 물이해를 생략한 결과 여자의 돌변으로 신도징과 자식들이 버려진 상황이 더욱 강조된다. 일연은 산림에의 뜻을 밝힌 시를 사람을 배반하는 시라고 했다. 산림은 호녀가 본래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다. 호녀가 자신의 본모습을 찾는 것은 사람에게는 배신이지만 호녀의 입장에서는 본모습을 찾는 것이고 해방이다. 그래서 여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大笑], 신도징은 크게 곡한다[大哭]. 『태평광기』 소재 <신도징>은 여자가 집을 나가며 좋아하고 남겨진 신도징이 우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독자들은 여자의 갈등과 깊은 슬픔을 이미 보았기에 여자가 달아난 것을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연은 그러한 부분을 생략해서 여자의 배신을 돋보이게 하고 가족을 희생한 여자와 대비시켰다. 일연은 가족을 떠난 여자는 이해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신도징의 서사를 배반한 여자의 서사로 만들었다. 이에 비해 일연은 김현과 호녀의 서사에서 여자가 김현을 설득하는 긴 대화를 실어 여자의 내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여자의 희생이 자발적이며 여자의 희생이 단지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김현, 사회와 국가에까지 이로운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호녀>에 비해 볼 때 이러한 설정은 작품의 내적 논리를 강화하

는 역할을 한다.²⁰⁾ 여자의 말, 즉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섯 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는 죽음의 의미를 확장하여 죽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가족을 위한 죽음, 국가를 위한 죽음이 숭고하다는 이념의 확인이다. 그런데 호녀에게 그 가족은 어떠한가? 오빠들을 비롯해서 어머니조차 호녀의 죽음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호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죽는 여자가 하는 저 말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한 여자의 희생이 가족을 이롭게 하고, 국가의 경사까지 가져온다는 말은 가족과 국가가 한 여자의 희생 위에 있다는 의미로 한 여자의 희생은 국가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까지 격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희생이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시대 열녀가 죽음에 가까운 헌신과 희생을 하거나 죽을 때 국가가 열녀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하지만 국가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가족의 유지로 수렴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남녀의 성별 위계와 억압의 구조는 반복된다. 이것이 가부장적 서사 장치, 젠더화된 플롯이다. <김현감호>는 이러한 젠더화된 플롯을 내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현감호>는 나말여초에 나온 전기가 가부장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플롯으로 전환되는 예를 보여준다. 그런데 일연은 애정전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일연은 오히려 애정전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찬을 써서 전의 형태를 갖춘 서사로 만들고 가부장적 성격을 강화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고려는 불교 사회이고, 조선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려시대 승려인 일연이 쓴 <김

20) 류준경은 호녀의 발언을 통해 호녀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반한 희생의 가치 실현이라는 <김현감호>의 핵심적 의미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류준경(2010), 앞의 글, 147쪽.

현감호>가 어떻게 가부장적 틀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다. 그것은 불교 교리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엄격한 카스트 신분 사회에서 인간 평등과 해방 사상을 주창한 붓다는 여성 수행자만으로 이루어진 비구니 승단을 설립했고, 여성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성·인종·신분·결혼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가자로 받아들여 평등한 수행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붓다 사후 교단이 급격하게 가부장적으로 위계화되면서 열등하고 부정한 여성관이 확립되었고, 여성혐오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교리나 계율을 통해 전승되었다.²¹⁾ 그리하여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여성성불론은 교단 내 가부장성이 강화되면서 교리 해석의 차이에 의해 여성성불론, 변성성불론, 여성즉신성불론 등으로 변해왔다.²²⁾ 불교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역할도 가부장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선생경』, 『범망경』, 『우란분경』, 『목련경』 등 불교의 많은 경전에서는 여성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거나 정토왕생(淨土往生)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여공에 힘써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며 남편의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것,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척에게 베풀어주고 이익이 되게 할 것을 요구했다.²³⁾ 김영미는 불교를 수용한 이후 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걸맞는 의식구조와 생활을 요구받았고, 바로 이 점이 고려 국가가 유교적 윤리관을 보급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불교 신앙을 장려하여 유교와 불교가 병존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밝혔다.²⁴⁾ 일연 당시 살았

21) 옥복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불교여성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3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5, 98쪽.

22) 옥복연(2015), 위의 글, 105쪽.

23) 김영미, 「불교의 수용과 여성의 삶-의식세계의 변화」, 『역사교육』 62, 역사교육연구회, 2010, 69쪽.

24) 김영미(2010), 위의 논문, 69쪽.

던 염경애(廉慶愛, ? ~ 1146)의 묘지명은 염경애가 최루백과 결혼한 뒤 시어머니를 효로 모시고, 제사를 챙겼으며, 길쌈을 하고, 남편을 열심히 내조한²⁵⁾ 고단한 삶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이나 혼인, 거주에 있어서는 고려시대 여성들이 조선시대 여성들에 비해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일연 당시 여성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당시 여성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맞는 의식구조와 생활을 요구받았으며, 일연이 보여준 가부장적 의식도 이와 비슷한 자장 안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맺음말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김현감호>는 인간/남자와 동물/여자의 사랑을 다룬 두 이야기를 병치하여 대비적인 사랑의 플롯을 제시한 뒤 두 이야기에 대해 일연이 평가한 내용을 담은 서사이다. 앞서 보았듯이 <김현감호>에 실려 있는 두 이야기는 <호원>과 『태평광기』 소재 <신도징>의 서사를 변개하여 수록하고 있다. <호원>에는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신도징>에는 있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김현감호>는 서사에 대한 서사라고도 할 수 있고, 기존의 서사를 재해석해서 새롭게 제시한 서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김현감호>는 기존의 전기 양식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어서 초기소설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그 주제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호녀의

25) 홍완표·권순형, 「고려시대 귀족 여성의 혼인 생활 연구-염경애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논문집』 37, 한경대학교, 2005, 191~194쪽.

희생은 작품의 의미를 규명할 수 열쇠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었다.

이 글은 일연에 의해 재탄생한 <김현감호>의 플롯을 분석하여 그 서사적 성격을 밝히고 이를 12세기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현감호>의 전체 플롯을 두 이야기와 일연이 쓴 찬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먼저 김현과 호녀의 이야기와 신도징과 호녀의 이야기를 <호원>, <신도징>과 각각 비교하고, 일연이 두 서사에 대해 평가한 부분을 분석하여 일연이 가부장적 서사 장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연은 두 이야기를 병치한 뒤 호녀를 자신을 희생해서 인(仁)을 이룬 윤리적 존재이자 절을 세우주기를 원하는 종교적 인물로 평가하고, 김현도 부처가 감응할 정도로 신심이 깊은 종교적 인물로 평가했다. 그리고 여자의 행위를 김현과의 사랑보다는 가족을 위한 희생에 더 초점을 맞추어 평가했다. <김현감호> 중 김현과 호녀의 서사 중 <호원>에 없는 부분은 일연의 서사의식을 드러내는 데 긴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일연이 첨가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류준경은 설화의 서사골격에 문인의 서술욕망이 결합한 것이라고 보았는데²⁶⁾ 이 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난점이다. 필자는 일연이 이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한 일연의 서사로 본다. <김현감호>의 김현과 여자 이야기는 남자를 위한 희생의 플롯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자의 플롯이 더해진 것이다. <신도징>과의 비교를 통해 보았듯이 일연은 여자의 시적 교양이나 삶의 지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대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자의 주장은 길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 글은 일연이 애정전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전기를 불교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26) 류준경(2010), 앞의 글, 149쪽.

당시 여성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맞는 의식구조와 생활을 요구받았으며, 일연이 보여준 가부장적 의식도 이와 비슷한 자장 안에 있었다.

<김현감호>는 12세기 무렵 인간/남자와 동물/여자의 사랑을 다룬 두 플롯이 경합하다가 김현의 이야기가 선택되는 현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사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또 일연이 두 이야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취사선택을 통해 일연의 독법을 보는 것 또한 흥미롭다. <김현감호>는 12세기 무렵 전기를 둘러싸고 일어난 장르 전환뿐만이 아니라 젠더화된 플롯의 강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김현감호>를 비롯한 인간/남자와 동물/여자의 이야기에서 동물이 여자의 은유로 등장하거나 동물과 여자가 전환 가능한 존재로 재현되는 것은 인간과 동물, 남자와 여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개재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대형 편역, 『수이전』, 소명출판, 2013, 1~359쪽.
- 이방 등 편, 『태평광기』 5, 文史哲出版社, 1981, 3223~4106쪽.
- 이방 등 모음, 김장환·이민숙 외 옮김, 『태평광기』 18, 학교방, 2004, 1~735쪽.
-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213~242쪽.
- 김영미, 「불교의 수용과 여성의 삶·의식세계의 변화」, 『역사교육』 62, 역사교육연구회, 1997, 37~70쪽.
- 덩위첸(鄧雨宸), 「김현감호의 호녀 형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70쪽.
- 덩위첸(鄧雨宸), 「〈金現感虎〉와 『太平廣記』 소재 虎女 이야기의 비교 고찰」, 『東方文學比較研究』 2,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4, 93~130쪽.
- 류준경, 「〈金現感虎〉를 통해 본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25~152쪽.
- 류준필, 「〈김현감호〉형 서사의 비교문학적 접근」, 『한국학연구』 4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149~192쪽.
- 박일용, 「소설사의 기점과 장르적 성격 논의의 성과와 과제」,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5~33쪽.
- 옥복연,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불교여성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여성학』, 31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15, 95~121쪽.
- 이정원, 「애정 전기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63~87쪽.
- 임완희, 「〈김현감호〉에 나타난 虎女의 형상과 주제의식」,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2017, 123~157쪽.
-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9~30쪽.
- 정출현, 「삼국의 여성을 읽던 一然의 한 시각: 金現感虎 의 경우」, 『문학과 경계』 13, 문학과경계사, 2004, 272~284쪽.
- 정환국, 「한국 초기서사의 복수(複數) 구도」,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학회, 2015, 147~182쪽.

조현우, 「<金現感虎>와 <虎願>의 對比 研究」, 『어문연구』 29권 1호,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2001, 178~193쪽.

홍완표·권순형, 「고려시대 귀족 여성의 혼인 생활 연구-염경애 묘지명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논문집』 37, 한경대학교, 2005, 185~195쪽.

ABSTRACT

A Study on the Plot of *Kim-hyun Gamho*[金現感虎]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Patriarchal Narrative Apparatus—

Kim, Kyung-mi

This article analyzes the plot of *Kim-hyun Gamho*[金現感虎] written by Il-yeon[一然] and reveals its narrative character and interprets it in relation to the lives of women in the 12th century. Il-yeon writes the story of Kim-hyun and the reveals his own evaluation of the two stories, and honors the woman whom Kim-hyun met with. I consider the two stories and the whole evaluation as a plot of *Kim-hyun Gamho*. So in this study, I compare the story of Kim-hyun and the woman and the story of the Shin-dojing and the woman with each of the *Howon*[虎願] and *Shin-dojing*, and analyze Il-yeon's evaluation of the stories at the same time. After juxtaposing the two stories, Il-yeon regards the wife of Shin-dojing as a traitor and the wife of Kim-hyun as a religious person who wants to make a sacrifice for herself and to build a temple. And Il-yeon regards Kim-hyun as a faithful religious figure. By the way, Il-yeon evaluates the act of a woman with focusing on sacrifice for family rather than love with Kim-hyun. As a result of this plot of sacrifice for man, plus a plot of a woman sacrificing for the family, *Kim-hyun Gamho* has a gendered plot with enhanced patriarchal character. It is a very interesting text from the point of view of epic. Because it shows a scene where two plots dealing with the love of a human/man and a tiger/woman compete and shows a scene where aejeongjeongi[愛情傳奇] turns into a Buddhist narrative. Through this, we can see one example of the transition of the narrative around the 12th century.

Key Words Il-yeon, *Kim-hyun Gamho*, *Shin-dojing*, patriarchal narrative apparatus, gendered plot

논문투고일 : 2019.04.22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